

Kwon Hyein

2024 「초분시간(s'm'h)」, Gwangju Biennale, Korea

2024 International Ceramics Festival Mino'24 , Ceramic Park MINO, Japan

2024 「工藝直感(Intuition of Craft)」, Group exhibition, Seoul Museum of Craft Art, Korea

2024 「An Eternal Flower」, Seoul Museum of Craft Art, Korea

2024 「Youth Art Store ARTFAIR」, Seoul Arts Center, Korea

2023 「Horizon」 exhibition, Lotte city hote, Seoul

2023 「THE VOID ODYSSEY ARTFAIR」, KIRSEOUL, Seoul

2023 「Craft: Form & Pop」, Songwon Art Center, Seoul

2023 「있다, connect」, K-Auction gallery, Seoul

クウォン・ヘイン

2024 「초분시간(s'm'h)」, 光州ビエンナーレ、韓国

2024 国際陶磁フェスティバル美濃'24、セラミックパークMINO、日本

2024 「工藝直感」グループ展、ソウル工芸博物館、韓国

2024 「永遠の花」、ソウル工芸博物館、韓国

2024 「青少年アートストア ARTFAIR」、ソウル芸術会館、韓国

2023 「Horizon」展、ソウルロッテシティホテル、韓国

2023 「THE VOIDE ODYSSEY ARTFAIR」、KIRSEOUL、ソウル

2023 「クラフト:フォーム&ポップ」ソンウォンアートセンター、ソウル

2023 「있다, connect」Kオークションギャラリー、ソウル



<名譽_ Undefinable>, Ceramic, 35x20x65cm, 2021



< The treasure vase >, Ceramic, 15x15x57cm, 2023

丸沼芸術の森は1985年、須崎勝茂氏(株式会社丸沼倉庫 代表取締役)により設立され、40名以上のアーティストを輩出してきました。30年以上の支援活動の結果、村上隆氏を始め、多くの作家が現在国内外で活躍しています。丸沼芸術の森は制作の場にとどまらず、アートと社会を結ぶ架け橋となっています。今後は、国際文化交流を通じ、よりグローバルな活躍を各作家が目指せるようにレジデンスや展覧会の企画などを積極的に行い、活動の幅をさらに広げていきます。

Marunuma Art Park was established by Mr. Katsushige Susaki in 1985 , and we hosted over 40 artists since then. Many artists , including Takashi Murakami , are active both at home and abroad as a result of our continued support to artists for over 30 years. Marunuma Art Park is not only a space for the conception of art but also acts as a bridge connecting art to society. We aim to further expand by broadening the range of our activities and proactively executing residency programs and globally more active.

クウォン・ヘイン 個展／もののあはれ

主催：丸沼芸術の森・韓国工芸デザイン文化振興院

後援：駐日韓国文化院

丸沼芸術の森

Marunuma Art Park

〒351-0001 埼玉県朝霞市上内間木493-1

TEL:048-456-2533

FAX:048-456-0003

<http://marunuma-artpark.co.jp>



< Mantra, Ceramic, 420×420×630mm, 2024 >



Marunuma Art Park
2025 Artist-in-residence Program No. 1
Kwon Hyein Solo Exhibition

2025年5月23日(金) - 25日(日) 10:00 ~ 17:00

目を閉じて触る器

2025年度最初の丸沼芸術の森レジデンスアーティストであるクウォン・ヘインはここで出会った人々を「花」のようだと言形容する。折しも桜咲く季節の中でもあったが、外国人である自分に対する周囲の優しさを愛おしく感じられる様は、まるで花に囲まれているようにだと語る。同時に、彼女にとって「花」は、人々の人格であり、人生を俯瞰するための象徴であるという。「花」にはクシャッと握れてしまいそうな柔らかさ・弱さ・儚さのようなイメージがある。しかし、それは生と死のつなぎ目として美しさを謳歌しているようであり、瞬く間に過ぎ去ってしまうことを惜しむ一つの光の形としての強度も同時に保有しているようでもある。

クウォン・ヘインは自作について「壺は、誕生と死の境界を探索する象徴的な存在であり、形態的な同質性を持っています。人間の始まりと終わりをその中に抱きながら、成長と変化の痕跡を凝縮しています。」と言う。確かに壺という器には、何かを保存する役割があり、同時に神秘的でもある。2021年の「白夢」というタイトルの作品では、装飾された5つの壺を中心に祭壇のごとく並べた作品群であった。これは胎壺（臍の緒を保管する壺）と骨壺をイメージしており、それぞれ名誉、富、健康、美、愛という名がつけられ、人間の根源的な5つの欲望が収められている。それらは、抽象的な生の物語を主題として壺の形になり、実に緻密で幾何学的でありながら艶かしく実際に触ることをためらってしまいそうな、まさに「花」そのもののようである。

轆轤で成形された白磁の表面に、鋭利なメスや彫刻刀を使って繊細な文様を彫り込み一貫した手業によって作品はつくられる。表面には韓国の伝統的な磁器の色を参考にし、現代的な解釈を加えたきらめく釉薬を施す。独特の色と質感によってつくられた器の佇まいは神殿のような荘厳さを纏っている。しかし、その完成度の高さ故に、技巧的な側面から3Dプリンターによる造作のようだとか、工業製品のような質感だとか意見されることもある。もちろん、これらは手の痕跡が持ちうる奇跡に対する無知であり、視覚情報信仰者の意見であるのだが。

クウォン・ヘインの作品は触ることを強要しない。むしろ視覚的に対峙することでその世界に介入できる。だからこそ、今この瞬間から見ることの意味自体を問い直し、目を閉じ、身体の感覚をその器に重ねてみてはどうだろうか。そこには本来触れ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光が、実体として触ることのできる物質として満ちていることに気がつくだろう。

東京造形大学 教授
大橋 博



< an eternal flower, 永遠の花_胞子 > , Ceramic, 55x55x60 cm, 2024



< an eternal flower, 永遠の花 >, Ceramic, 45 x45 x40 cm, 2024



< Mantra >, Ceramic, 42 x 42 x 63 cm , 2024

目を 閉じ て 触 る 器

2025년 첫번째 마루누마 예술의 숲 레지던시 아티스트인 권혜인은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을 ‘꽃’과 같다고 형용한다. 마치 벚꽃이 피는 계절이기도 했지만 외국인인 자신에 대한 주위의 친절함을 사랑스럽게 느끼게 된 모습은 마치 꽃들에게 둘러싸인 것과 같다고 말한다. 동시에 그녀에게 있어서 ‘꽃’은 사람들의 인격이며, 인생을 바라보기위한 상징이라고 한다. ‘꽃’에는 구깃하고 움켜쥐고 싶은듯한 부드러움, 연약함, 허무함과 같은 이미지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생과 사의 이음매로서 아름다움을 칭송하고 있는 것 같으며, 눈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버리는 것을 억울해하는 하나의 빛의 형태로서의 강도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권혜인은 자신의 작품에 대해 “항아리는 탄생과 죽음의 경계를 탐구하는 상징적 존재이며, 형태적인 동질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의 시작과 끝을 그 안에 내포하며 성장과 변화의 흔적을 응축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 확실히 항아리라고 하는 기(器)에는 무엇인가를 보존하는 역할이 있으며, 동시에 신비롭기도 하다. 2021년 작품 ‘백몽(白夢)’ 은, 장식된 5개의 항아리를 중심으로 제단과 같이 나열되어 있는 작품이었다. 그것은 태항아리와 유골함을 이미지로 한 작품으로, 각각 명예, 부, 건강, 아름다움, 사랑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인간의 근원적인 5개의 욕망이 담겨 있다. 그것들은 추상적인 삶의 이야기들을 주제로 하여 항아리의 형태로 표현되었고, 실로 세밀하고 기하학적이며 우아하여, 실제로는 만지기를 망설이게 하는, 마치 ‘꽃’ 그 자체처럼 느껴진다. 물레로 성형된 백자의 표면에 날카로운 칼과 조각도를 사용하여 세밀한 문양을 조각하는 일관된 수작업으로 작품이 제작된다. 표면에는 한국의 전통적인 자기의 색을 참고하고, 현대적인 해석을 더하여 화려한 유약을 입히기도 한다. 독특한 색과 질감에 의해서 자아내는 기(器)의 이미지는 신전과 같은 장엄함을 휘감고 있다. 그런데 높은 수준의 완성도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3D프린트로 만든 것 같다’ 라든지 ‘공업제품과 같은 질감이다’ 라는 의견을 듣기도 한다. 물론 이런 것들은 손의 흔적이 가질 수 있는 기적에 대한 무지이며, ‘시각 정보 신앙자’의 의견일 뿐이다.

권혜인의 작품은 만지는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 오히려 시각적으로 대치함으로써 그 세계관에 개입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부터 보는 것의 의미자체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며 눈을 감고 신체의 감각을 동원해 그 기(器)에 포개어 보면 어떨까? 어쩌면 본래 만질 수 없었던 빛이, 실체로서 만질 수 있는 물질로 가득해진 것을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동경조형대학 교수
오하시 히로시